

2025 제63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K-Theater Awards 심사 총평

2025 케이씨어터 어워즈(K-Theater Awards) 심사위원 5인은 올해의 대상에 극단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웃놀이>(윤조병 작·이철희 각색, 연출)를, 한미약품 창조와 도전상에 공놀이 클럽의 <클뤼타임네스트라>(강훈구 작·연출)를 선정한다.

심사위원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공연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별 대표 후보작과 월간『한국연극』선정 ‘2025 공연베스트 7’ 작품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공연의 창의성, 공연의 완성도, 공연의 예술미 등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연극 무대를 통해 동시대 문제를 치열하게 반영한 추천 후보작들을 살펴본 결과 심사위원단은 올해의 대상으로 극단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웃놀이>를 선정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극단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웃놀이>는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인간 삶의 운명을 극적 호흡과 리듬으로 살려낸 장점이 심사위원단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극단 코너스톤이 작년도 케이씨어터 어워즈 대상을 수상했다는 이력이 선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견 없는 심사위원 전원 일치의 호평 속에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미약품 창조와 도전상에 선정된 공놀이클럽의 <클뤼타임네스트라>는 대학로를 벗어나 연희동의 연희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이다. 아이스퀼로스의 <아가멤논>을 강훈구 연출이 자신의 특화된 영역인 청소년극의 범주로 끌어와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극작을 겸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훈구의 발랄한 상상력과 탄탄한 극작이 결합되어, 도전하되 연극의 기본을 잃지 않는 젊은 창작자의 미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올 한해는 문화콘텐츠로서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된 반면, 연극 현장의 상황은 새로운 형식에 도전하거나 소재의 뒤편을 벗어난 신작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창작극의 가뭄 속에서 화제작 역시 많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추천 후보작의 성취가 일정 정도 평준화된 상태였다는 점은 안도감이 아니라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라 하겠다. 연극 제작의 현실이 가혹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지역 자신의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극인들의 열정을 충분히 격려할 수 없다는 점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극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 주는, 지난 일 년 한국연극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온 모든 연극인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외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단 일동

김기환

김건표

안희철

임대일

정재호